

# “보증금 돌려주세요” 지역 임차권등기 더 늘었다

**신청 건수 전년비 광주 67.8%·전남 32.2% 증가**  
전국 2만8044건 40.8% 줄어 진정 국면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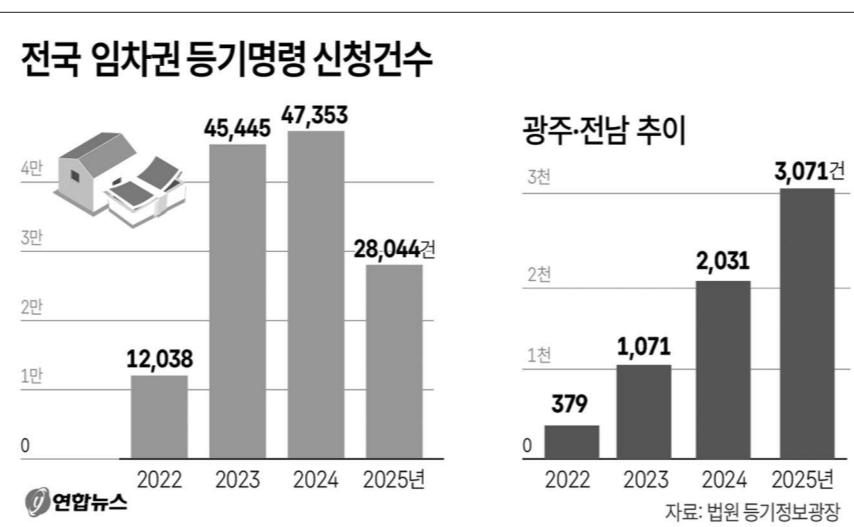
전세사기 피해를 가능하는 주요 지표들이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는 관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줄었지만, 광주와 전남은 오히려 증가하며 지역 간 피해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였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광주에서 접수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819건으로 전년(1084건) 대비 67.8%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947건에서 1252건으로 32.2%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체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형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이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임차권 등기 건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9건(광주 145건·최근 3년간(2022~2024년) 신청된 관

1084건·전남 947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부동산 건수는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0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445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7353건까지 늘었다가 지난 해 40.8%(1만9309건) 감소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줄었다는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거나 풀었으며,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318건→5333건)과 인천(8989건→3178건)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도(1만2672건→7710건)와 부산(5424건→3825건), 대구(888건→462건) 등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광주와 전남, 제주(171건→216건)는 증가해 전국적인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가능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전국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은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줄었다. 연간 집계가 완료돼도 전년의 절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도 2024년 2만941건에서 6188건으로 3분의 1 아래로 급감했다. 보증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 4089억원에서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업체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 광주시, 창업기업 성장 ‘박차’…펀드 1조까지 확대

**기술 실증·해외 진출 연계  
예비-초기-도약-G유니콘  
'창업성장 사다리' 고도화**

광주시가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등 창업 기반시설 '삼각밸트'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 실증,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지역 창업기업 성장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5000억 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 원 규모로 확대, 창업기업이 자본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도전 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로 조성해 창업 초기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투자 연계를 한 층 강화한다.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펀드와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는 성장 단계 펀드를 각각 마련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품종화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창업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춰 '예비-초기-도약-지(G)-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예비창업자 50명, 초기창업기업 30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33개사, 지(G)-유니콘 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특성에 맞춘 밀착형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G)-유니콘 기업에는 기술 고도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올리 을해부터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해 차세대 성장동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도시 전반을 혁신기술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실증 생태계도 한층 강화된다.

자율형·시민체감형·솔루션형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견증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병원·대학·공기업과 연계한 실증과제를 확대해 기술 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혁신기술 실증과제 수요조사는 1월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기 실증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총 31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400억원의 구조조달화자금, 30억원의 수출진흥자금을 통해 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도 병행한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창업 기반시설 구축부터 투자, 성장 지원, 기술 실증, 금융·해외 판로 지원까지 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 초기기업이 광주에서 태어나 견증과 성장을 거쳐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농기센터,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2일부터 30일 까지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2급 치유농업사는 교육 이수 자가 자격시험을 통해 치유농업사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실행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관리 △치유농업 지원 및 치유농업 시설 운영·관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을 위한 시설·장비·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정해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 대학부설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운영계획서 등 필

요 서류를 준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산구 평동로 639-22, 치유농업팀, 온라인(전자우편 nancmj90@korea.kr, 공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서로·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의 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양성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지정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wangju.go.kr/agri/)의 농업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 역량과 시설을 갖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치유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중흥그룹, 협력사와 ‘중대재해 ZERO’ 안전교육

중흥그룹이 최근 전남 나주시 중흥홀드스파&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 소속 안전부 팀장 및 관계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올해 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승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흥그룹은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과 안전기원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이사와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이사

를 비롯해 본사 안전부 팀장 및 임직원 41명과 100개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

뉴얼을 숙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동종업계 이슈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았다.

취임 후 첫 행사에 참석한 김해근 대표이사는 “안전과 품질은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로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된 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안전 체계를 구축해 구호로만 외치는 ‘안전 최우선’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전·보건 경영을 통해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표이사도 “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전남증기일자리진흥원, 무안 ‘청년 도전 지원’ 확대

구직 단념 청년 대상 최대 350만원 수당·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전남증기일자리경제진흥원이 무안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맡아 사업 규모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높은 참여율과 수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취업 재도전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전남증기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증기일자리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 무안군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산과 모집 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무안지역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기일자리진흥원은 2025년 사업 운영 당시 참여 청년들의 높은 호응 속에 이수율이 100%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또래 지원단 등이 ‘청년 웨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 효과를 입증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안군 관련 조례에 따라 만 45세까지도 일정 비율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참여 기간에 따라 3개 모듈로 나뉜다. 단기(5주)는 자신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중기(15주)는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장기(25주)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멀티 상담과 사례 관리, 취업 역량 강화 과정이 무료로 지원되며, 참여 기간에 따라 월 50만원씩 수당이 지급된다. 이수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대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강할 예정이며,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LH,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 오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통합 플랫폼인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단지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 평형, 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고, 세대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https://hanaro.lh.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